

JTC (950170)

기업 탐방노트 | 미디어/엔터/통신

NR

목표주가	NR
현재주가	7,030 원
시가총액	2,461 억원
KOSDAQ(01/28)	664.7 pt

FY3Q Review: 잘 싸웠지만, 역부족

Analyst 김현용 _ 02 3779 8955 _ hyunyong.kim@ebestsec.co.kr

컨센서스 대비

상회	부합	하회
	●	

Stock Data

90 일 일평균거래대금	11.24 억원
외국인 지분율	10.1%
절대수익률 (YTD)	-18.2%
상대수익률(YTD)	-17.4%
배당수익률(19E)	0.0%

재무데이터 (IFRS 연결기준)

(십억원)	2016	2017	2018	2019E
매출액	533	532	519	625
영업이익	27	31	23	41
순이익	15	25	8	25
ROE (%)	12.4	18.5	4.1	11.7
PER (x)	n/a	n/a	28.8	9.4
PBR (x)	n/a	n/a	1.3	0.9

자료: JTC,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Stock Price



방일외국인수 성장 정체가 투영되며 아쉬운 3Q 실적 기록

- 동사 FY3Q(9~11월) 실적은 매출액 118억엔(YoY -1.9%), 영업이익 2.5억엔(YoY -44.5%)기록. 한화로는 매출액 1,287억원(YoY +7.2%), 영업이익 27억원(YoY -39.4%)으로 매출은 엔화 강세로 선방했지만 보고통화 기준 2% 하락했고, 방일 한국인 급감에 따른 전방 환경 악화가 수익성에 투영되며 큰 폭의 감익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
- 동기간 방일외국인수는 721만명(YoY -0.6%)으로 한국인은 YoY -63.2% 급감한 60만명, 중국인은 YoY +15.9% 증가한 230만명을 기록. 방일중국인 두자리수 증가에도 매출비중 25% 수준의 방일한국인이 63% 급감하며 동사 매출은 마켓퍼폼 이하를 기록

12월 방일외국인수 4% 감소 출발 & 우한폐렴까지 겹쳐 4Q도 어렵다

- 12월에도 방일외국인수는 253만명(YoY -4.0%)으로 부진을 이어감. 한국인은 25만명(YoY -63.6%)으로 최악의 3분기 월20만명 수준은 벗어났으나 계절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긴 힘들다는 판단. 중국인은 YoY +18.5% 증가한 71만명으로 호조세 지속된 점은 긍정적
- 그러나 1월말 우한폐렴 확산 이슈로 2월은 방일중국인도 감소가 불가피. 방일한국인 반등은 빨라야 2분기(총선과 올림픽 사이)를 예상하기에 동사 FY4Q19(12~2월) 실적도 다소 부진이 예상됨

천억원에 육박하는 현금과 PER 12배는 매력적

- FY3Q말 현재 현금 950억원(순현금 450억원) 보유 중이며 전일 급락으로 PER는 12배 미만으로 하락한 상태
- 다만, 일본에서 영업하는 면세점(인바운드) 사업자로 상당 기간 우한폐렴 이슈를 빚겨가긴 어려울 전망. 단기로는 관망세가 유효할 전망

JTC 목표주가 추이		투자 의견 변동내역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과리율(%)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과리율(%)		
					최고 대비	최저 대비	평균 대비				최고 대비	최저 대비	평균 대비
		2020.01.29	변경	김현웅									
		2020.01.29	NR	NR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현웅)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 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95.0% 5.0%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20%에서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 의견 비율은 2019. 1. 1 ~ 2019. 12.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